



요약

사실

어려운 시대를 위한 성모님.

양성 여정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아들의 자녀들이여,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서로를 알아가기

아르테미데 자티.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총장의 편지: 성체의 닷과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목주기도는 목상했습니다. 즐거운 미스터리.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됐어요.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살레시오회 Andrew Wong 신부의 증언.

가족의 연대기

- 인도네시아 - 9명의 ADMA 회원 서약.
- 시칠리아 - 칼라타비아노 - 1차 피정.

- 필리핀 - 40주년 ADMA 전국대회.

사설

“어려운 시대를 위한 성모님”

P.1

사랑하는 ADMA 회원 여러분,

P.2

우리는 돈 보스코께서 칼리에로 신부에게 말했던 그 유명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P.6

“성모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이 슬픈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MB VII, 334)

P.8

우리 각자는 현대 세계에서, 바이러스, 전쟁, 빈곤, 불의와 같은 유례 없던 극적인 상황들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의 변하지 않는 삶과 새로운 사회 정치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목자들의 직무와 젊은이들의 전인교육과 가난한 이들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마리아적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면, 돈 보스코와 그의 가족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도움이신 마리아의 신심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지닌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창립자이며 아버지이신 돈 보스코의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성장해가던 영적인 삶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이 도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10

P.12

P.13

돈 보스코께서는 갑자기 이 신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며, 지역 신심이기에 무조건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특별한 시대적 상황과 그의 영적이며 사도적인 성숙함 안에서 발견됩니다. 돈 보스코는 일상생활 안에서

성령과 친숙하면서도 심오한 개인적인 대화 안에서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자들의 도움은 돈 보스코가 마리아에 대해 느꼈던 정점입니다. 변호자, 조력자, 젊은이들의 어머니, 신자들의 보호자, 악마로부터의 승리자, 이단으로부터의 승리자,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도움, 교회의 보루, 교황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사제들의 도움이라고 돈 보스코는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돈 보스코의 신심은 그의 영성을 특징짓는 것이며, 그의 행위의 거룩함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대한 교회의 역동성(MB VIII, 4)의 중심에 있는 성모님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화가 로렌조네와의

대화를 읽어보거나, 교회의 사도직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 구성된 살레시오 정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발도코 대성당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그룹과 함께 하느님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성모님을 알리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느낍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메리: 변호사, 조력자, 젊은이의 어머니, 기독교인의 보호자...”

양성 여정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아들의 자녀들이여,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바라보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어른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단계에서 실제로 “자급자족”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 자체는 좋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확신하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알아서 한다는 사고를 가질 때, “자급 자족”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시리아인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하던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르단강에 씻으러 가기 위해, 예복과 입고 있던 갑옷을 벗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아만은 예언자 엘리사를 신뢰해야 했으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나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한 법적 이행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9일 성 요한 세례자 스칼라브리니와 성 아르테미데 자티 시성 강론 참조).

그러므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깊은(그리고 점점 더 커가는)

믿음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것은 말하거나 쓰기는 아주 쉽지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나의 기도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하느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예를 들어 몸이 좋지 않을 때 “기쁨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기 위해” 건강을 구합니다. OK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시 멈추어 생각해 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든 그렇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병을 앓다가 죽는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이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을 끝냈을 때,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전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꿈이라면...”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첨가”되지 않은 청원기도는 재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처럼, 은혜를 뽑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내 기도는 내가 넣는 동전과 같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유통업자가 동전을 “훔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하느님은 잔인한 신이구나!”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깊은 신뢰의 자세를 필요로 하며, 자급자족의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탈리아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어로는 “이기심”-이기주의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린이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18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그것은 어린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되는” 것의 문제이며 진짜 어린이로 되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영적 성장 과정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길 때, 어린이가 “됩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평생에 걸친 성장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자신을 위탁하는 어른만이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장소나 은혜, “자급자족”의 필요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어린이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모두 맡기고 하느님 안에서 쉬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불안해 합니다. (편집자 주: 작가 Jacques Philippe의 글을 자유롭게 각색함.)

한 친구가 어릴 적에 자신이 경험했던 모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5~6세였으며, 그의 가족은 산으로 산책을 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하루였지만 매우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오면서, 나의 친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가 한 손을 잡아 주었고, 다른 손은 엄마가 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걷고 있는지 날아가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들은 “무사히” 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뒷좌석에 앉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친구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늘 그때를 기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손이 나를 잡아 주고 있어서, 내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두려움 없이 산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무 시시한 이미지인가요? 그와 반대로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하면서, 힘들 때만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단순하지만 강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룩한 저자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히브 10, 5-7)

이것은 성서를 통해 육화의 신비를 읽도록 우리를 초대해주며(루카 2장 참조), 성자 안에 있는 성부와 성부 안에 있는 성자에 대한 신뢰의 매우 심오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좋아하는” 분이시므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완성이 아닌, 자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겐세마니에서 볼 수 있는 숭고한 신뢰의 모습입니다(루카 22,42 참조.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루카 23,46 참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물론, 이러한 성향을 타고나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도달하게 될지... 얼마나 갈 길이 먼 지 깨닫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카복음 2장의 육화의 신비를 배경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 복음서의 각 장과 행 사이에서 전개되는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왜 일어나는지,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려는 순간에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더 나은 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는지? 그들은 왜 여관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는지? 예를 들자면, 인구 조사로 인해 여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든지...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인지? 그들이 정말 목자들인지? 당시의 사고 방식에 따라 목자들은 정말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그들은 항상 동물과 함께 있었고, 도둑처럼 밤에 일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관찰은 루카복음의 이 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9 그리고 v. 51b -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여기 어린이와

같이 되기 위해, 스승이신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묵상과 침묵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그리스도의 순명의 신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이야기 끝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때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이해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과 정신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스쳐지나 갔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자렛에서의 30년 숨은 생활 동안, 마리아는 또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요? 웃고 울고 자고 먹고, 넘어지고, 무릎 꿇는 이 아이는...? 눈은 하늘의 투명함을 반영하고 있지만, 특별한 것 같지 않은 이 소년은? 남들처럼 회당에서 공부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게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같은 또래 아가씨들에게는 관심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은? 그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녀의 온 삶을 “달려가는” 동안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어두움의 순간에도, “예”라고 말한 그날처럼,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묵상과 침묵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신비는 하느님 계시의 가장 특권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현존하는지를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녀가 우리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며, 참된 신뢰와 깊은 기도로 초대됩니다. 마리아의 두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긴다면, 그녀는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참된 인식으로 그분과 통교를 이루게 해줍니다. (편집자 주: 작가 Jacques Philippe의 말을 자유롭게 각색). 성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의 서거 400주년을 맞이하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모습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한 2022 스트렌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렌나의 제목은 프란체스코가 요안나 상탈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아주 좋아한다면, 바꾸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아무 것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순명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순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편지 CCXXXIV. 요안나 샬탈 프란체스카, 1604년 10월 14일, OEA XII, 359.)

“불순명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순명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 는 말은 우리에게 순명이라는 주제에 대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접근 방식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넘어질까 봐 달리기를 멈추거나 걷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인간이 마음으로 친교를 이루듯이 하느님께도 마음으로 맺는 친교의 가장 중요한 길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하느님은 “인간 마음의 친구” 도 아니고 인간 마음의 하느님 만도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통한, 하느님 뜻에 의한 사랑을 말합니다. 스승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맥박 안에서 뛰게 해주기를 빕니다. 기도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조, A. 페르난데스 아르티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Strenna 2022, pp. 22-23).**



“...신을 믿으세요. 산길을 안전하게 걷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의 손이 저를 안아주고 넘어져 다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개인기도와 묵상을 위해

- 1)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급자족”하거나 “자립적”인 경향이 있으며,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 2) 나는 나의 청원기도를 어떻게 바치고 있습니까? 나는 그 기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하느님의 꿈에 빛을 받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 또한 하느님을 은총의 “자판기”로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 3) 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한 여정의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느님의 손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 4)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기를 나의 믿음으로 선택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 5) 나는 “FIAT” 하신 마리아로부터 성령강림의 마리아까지 신앙의 인간적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 6) 순명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불순명하게 될까 두려워합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끔 걸음을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까?
- 7) 개인기도를 할 때, 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나요, 아니면 하느님의 마음을 더 많이 체험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나요? 아직도 많은 “소음”이 있고 그분은 작고 내가 큼니까?

이 달의 약속

모든 기도마다 하느님께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꿈이라면...”,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서로를 알아가기

아르테미데 자티

돈 보스코의 사목적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온전히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

아르테미데는 1880년 10월 12일 보레토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아버지 루이지와 어머니 알비나 사이에서 8남매 중 셋째로 가난하지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빈곤에 시달리던 자티 가족은 1897년 초(아르테미데가 17세),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바이아 블랑카에 정착했다. 그러나 아르테미데의 삶에는 또다른 “이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바이아 블랑카에서 결핵에 걸려 그의 모든 꿈이 사라질 것 같았을 때, 그는 비에드마로 가서 “격리” 되었고, 꽃과 노래로 장식된 수레를 타고 성요셉병원에서 성이시도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바이아 블랑카에서 젊은 아르테미데는 본당에 다니게 되는 데 그곳은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본당이였으며, 거기서 카를로 카발리 신부를 만나게 되고, 본당신부이며 영적지도자인 카발리 신부는 그를 살레시오회의 삶으로 초대한다. 비에드마에서 그는 치유를 위해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기도하라는, 에바시오 가로네 신부의 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성모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 동안 아픈 사람들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제안했다. 아르테미데는 기꺼이 약속하고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살레시오 수사로서 그는 1908년 1월 11일 첫 서원, 1911년 2월 18일에 종신 서원을 했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사 신부로서 하느님께 봉헌하기를 원했다.”

병원은 그가 일생 동안 착한 사마리아인의 동정심 가득한 자비를 날마다 실천한 곳이다. 병동에서 병자들을 깨울 때, 그는 이렇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성요셉을 모두 함께 찬미합시다.”

그는 보통 하얀 약사 가운과 약이 든 가방을 들고 비에드마 시로 갔다.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한 농부는 그에게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자티 수사님. 당신과 헤어지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한테 안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해 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나도 그래요.”

자티 수사가 그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르테미데 자티는 환자들을 사랑했고, 그의 예수님을 보는 듯 봉사했다. 어느 날 그는 의복관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갈아입을 옷을 좀...”이라고 말했다. 자티수사는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의 첫 영성체를 위해 옷이 필요할 때 아르테미데는 “우리 주님을 위한 작은 옷”을 달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의 중심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도 일을 잘 처리했다. 병원 의사 중 한 명이 이렇게 증언했다. “자티 수사님을 만나고부터 나의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말한다. “저는 자티 수사님을 만난 이후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는 종지기였으며, 공동체 시간에는 누구보다 먼저 와 있었다. 훌륭한 살레시오안으로서 그는 명랑함을 성덕의 한 요소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사진에서 나타난다.

1950년에 그는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이 사고로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1951년 3월 15일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비에드마와 파타고니아 주민들에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종재자로 자티 수사에게 전구를 청하기 시작했다. 살레시오 기숙학교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공동체에는 한 형제가 줄었지만, 하늘에는 한 성인이 늘었다.”

시성을 위한 기적

인정된 기적은 2016년 8월 “대규모 출혈성 병변으로 복잡한 우측 소뇌 허혈성 뇌졸중”을 앓던 필리핀인 테나토의 기적적인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는 증상이

악화되고 보행이 어려워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어지럼증과 혼란으로 오히려 증세가 심해져서 중환자실로 갔다.

그의 형제인 살레시오회 로베르토 수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입원 당일 공동체 저녁기도 중에 복자 아르테미데 자티의 전구를 통한 치유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신경외과 검진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가족의 빈곤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는 병자성사를 받았고, 주위에 있던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 줄 것을 요청했다.

로베르토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자 아르테미데 자티에게 간절히 전구를 청하자고 초대했다.

2016년 8월 24일,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레나토의 산소호흡기를 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를 뺀 후 그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괜찮다며 목욕도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며칠 만에 다시 건강해졌다!

이 기적은 ‘**가난한 이들의 친척**’이라고 불리웠던 **아르테미데 자티의 카리스마**를 확인시켜준다. 사실 아르테미데는 아르헨티나 비에드마에 있는 그의 병원에서의 의약품과 입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조건없이 받아들였으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환영했었다.

기적은 육체적인 치유로만 그치지 않았다. 하느님의 은혜는 육신을 치유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감동을 주어, 믿음과 관계와 새 삶의 증거 안에서 새롭게 했다.

어느 날 성 요셉 병원의 한 의사가 “자티 수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 “많이 행복해요. 의사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적든 많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만족해야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라고 자티 수사가 말했다.

이것은 자티 수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보내는 축복이자 메시지이다. 그는 1908년 아버지 루이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오직 아버지 눈 아래 한 가지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그렇다면 우리는 나뉘어질 필요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뉘어질 염려 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오, 맞아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인내해야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천국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고통은 한 순간이고 천국은 영원함을 기억하기로 해요!”

살레시오 가족 시성 담당 사무관 피에르 루이지 카메로니
신부



“안녕하십니까.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 만세...”



믿고, 맡기고, 미소짓자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매 신부의 편지 성체성사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닳을 내려라



편지의 첫 장의 제목은 성체흡수와 신자들의 원죄 없으시며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으로, 우리 신심회의 영성과 삶의 근본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총장님은 계속해서:

“돈 보스코에게 그리스도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살아 계신 예수, 생명의 빵이시며, 하느님과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아드님이십니다. 돈 보스코는 이 두 분의 실존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맘마 말가리다의 가르침으로, 마리아는 돈 보스코의 삶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성모님께 대해 돈 보스코는 그의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를 악마의 울무에서 빼내주는 강력한 무기이며 크나큰 도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은 항상 우리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습니다!...”
(돈 보쉬)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그녀에게 전구를 청할 때 그녀의 외투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며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돈 보스코는 회원들을 “신심을 지닌 자” 로 생각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진정한 신심”은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사랑(은총)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의 선물(애덕)에 응답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참된 “신심을 지닌 자”들이라면 우리는, 작은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각자의 일과 행위로, 받은 모든 선물을 가지고, 용기와 준비된 자로서, 자신의 성소에 따라 교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덕의 뿌리와 살레시오의 카리스마를 잊지 말고,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신심의 길을, 오늘날에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그 여정은 확실히 피곤하고 느리긴 하겠지만,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의 모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스승이시며 우리를 향구하게 인도하시고 동반해 주시면서 우리 사명의 모든 날에 현존하십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몬칼리에리 방문 수녀회에서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묵상하며 바치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루카복음 (참조. 1,26-37)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

마리아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하느님께 순명하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이렇듯 완전한 순명, 겸손, 사랑으로 마리아는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을 자신의 태중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당신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당신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드립니다. 아멘.

●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합니다. 루카복음 (참조. 1,39-56)

“천사의 알림을 받은 마리아는 서둘러 길을 떠나 유대 산골로 가서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묵상을 위해

마리아는 겸손과 사랑으로 감동하였고, 서둘러 엘리사벳에게 갔다. 사랑은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사랑은 마음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을 태중에 잉태 하셨으며, 그로 인해 사랑이 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 뿐 아니라 구원과

온갖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셨다.

기도

우리의 구원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가 성령의 영감에 순응하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드립니다. 아멘.

● 환희의 신비 제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루카복음 (참조. 누가복음 2,1-21)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묵상을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셨고, 우리의 작음으로 위대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은 하느님이시면서 영원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안에 신뢰로 가득 찬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이같이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작은 아기로 태어남을 누가 살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으니,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흠송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당신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드립니다. 아멘.



● **환희의 신비 제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루카복음(참조. 2,22-35)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시메온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묵상을 위해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인도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행동을 구세주와 합하여 바치는 법을 배운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메온은 그의 팔에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분을 환영합니다. 입술로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고, 팔로 선을 행하며, 어깨로 그의 멍에를 맵시다.

기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 예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세상 구원을 위한 당신의 희생에 합하여, 우리의 삶을 봉헌하게 하소서. 당신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드립니다. 아멘.

● **환희의 신비 제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루카복음(참조. 2,41-52)

“예수의 부모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묵상을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을 수 없어, 고통 속에서 유일한 사랑의 대상을 계속 찾았으며, 예수를 찾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찾는 데 지치지 말아야 하며, 피조물이 주는 만족에 그치지 말고, 예수와 하나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성전에서 찾으신 예수님, 저희가 항상 참 지혜이신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당신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드립니다. 아멘.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동티모르에서 있었던 도움이신 마리아의 중재
“됐어요.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살레시오회 ANDREW WONG 신부의 증언 - 1999년 9월 4일

23년 전인 1999년 9월 4일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는 수도회 관구관과 직업 학교, 소년 기숙사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간의 전쟁이 끝날 즈음의 어느 달이었습니다.

많은 집과 학교, 관공서가 파괴되었고, 여러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기도 끊겼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본당과 수도의 여러 지역에서 온 다른 본당 신자들과 동티모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우리는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9월 4일 그 날 아침, 인도네시아 군인 한명이 나에게 와서 오늘밤에 특수부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가끔 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들은 왜 우리를 학살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티모르 게릴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군인들이 찾고 있는 몇몇 티모르 남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신부님, 당신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특수부대는 잔인해서 당신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지금까지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무기와 수류탄을 든 병사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제들, 즉 네 명의 살레시오회 신부와 협조자들이 군인들이 도착하면 협상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철문을 열고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대표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우리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서 병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평온하게 남아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 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면, 가족대표들은 가족과 함께 우리 집 벽을 향해 달려가, 벽을 넘어 근처 언덕을 향해 뛰어 도망가기로 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노약자, 어린이, 여성들이 쉽게 벽을 올라 언덕으로 도망갈 수 있게, 오후 내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6시, 우리 공동체 원장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개별 고백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두 집안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진정되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우리가 죽을 것이고 협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성체현시를 한 후에 수녀원의 안전한 곳에 성체를 숨겼습니다. 자정쯤에 원장 신부님과 저는 우리 차례가 되어 군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딘가에 누워있었습니다. 갑자기 군용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우리 문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이벤트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철문을 열기도 전에 병사들이 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철문에 맞은 총알의 충격이 너무 강해서 원장님과 나는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땅에 쓰러졌습니다. 총을 맞은 줄 알았는데 몸을 만져 보니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원장 신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또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류탄이 반대편으로 던져졌습니다. 내 머리 바로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도공동체 형제들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하늘 어머니의 개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발포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고 큰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거나 뛸 수 없었습니다. 총체적 혼란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문에서 나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문 가까이에서 들려왔으며, 아주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물론 그 말은 인도네시아어인 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모두 인도네시아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순간 갑자기 혼란이 멈추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 집으로 달려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용 트럭이 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과 울음을 그쳤습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고요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땅에 쓰러진 채로 원장 신부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르술라 수녀님들이 우리를 구했고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참고로 우르술라 수녀님들은 인도네시아인이었고 수녀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티모르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장 신부님에게 우리가 수녀원에 가서 감사드려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는 다음 날 아침에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곤하고 두렵고 충격을 받았으므로 아침까지 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경, 9월 5일, 나와 원장 신부님은 우르솔라 수녀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땅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총알을 보았습니다. 수녀원에 도착한 우리는 그날 밤 우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 수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수녀님들은 너무 놀라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어젯밤에 모두 한방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원장 신부님과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 어머니께서 하신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을 막아서며 우리를 학살에서 구해주신 분은 성모님이라고 믿습니다.

Andrew Wong 신부, Sdb

은혜를 받았다면 사진과 함께 짧은 간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adma@admadonbosco.org

가족의 연대기

인도네시아 - 9명의 ADMA 회원 서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022년 9월 24일, 자카르타 북부의 Sunter의 살레시오 수련소 공동체 성당에서 9명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 회원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 루이지 베르실리아” 준관구 (INA)의 부관구장 리노 벨로 신부가 미사를 주례하였습니다.

시칠리아 - 칼라타비아노 - 1차 피정

10월 17일 월요일 칼라타비아노의 ADMA는 피에몬제 에트네오의 카푸친 수녀원에서 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신부(sac. Salvatore Sinitò)의 지도로, “성서 말씀 -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필리핀 - 40주년 ADMA 전국대회



필리핀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는 2022년 10월 15일 파라냐케 시의 도움이신 마리아 국립성지에서 제40회 전국 대회를 경축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ADMA, 살레시안 양식으로 생활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기”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면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필리핀 북부지역과 필리핀 전국 영적활성자이신 Nestor

Impelido 신부(SDB)는 ADMA 회원들이 안내자이신 마리아를 모델로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는 전국 18개 지부에서 온 약 200명의 ADMA 회원들로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SDB Godofredo Atienza 신부, 살레시오 가족 담당이며, 필리핀 남부 관구(FIS)의 ADMA 대표의 지원으로, SDB Rooney John Undar 신부와 함께 ADMA FIS 회원 3명이,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